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7. 11.(월) 06:00 ~ 23:00
- 상담건수¹⁾: 880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7명)

-프로그램명 : 「전국노래자랑」 ‘전남 영광군 편’

-방송일시 : 2022. 7. 10.(일) 1TV (12:10-13:20)

이날 「전국노래자랑」이 무려 2년 반 만에 현장에서 진행됐다.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출연자들이 펼치는 노래와 개인기, 그리고 전남 영광군의 자랑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시청하며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몽클했다. 송해 선생님의 빈자리는 아쉬웠지만, 이호섭·임수민 진행자의 맛깔 나는 진행도 신선하고 보기 좋았다.

○ 출연자 섭외 제언(4명)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시즌2’

-방송일시 : 2022. 7. 11.(월) 1R (07:20-08:57)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해 ‘첩보 삭제 진실 공방, 입장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방송에 출연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편파적이다. 또한 박지원 전 원장이 「사사건건」을 비롯한 KBS 시사 프로그램에 중복적으로 출연하는 점도 청취자 입장에서는 식상하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외 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7.1일부터 프로그램별 인터넷의견은 보고서에서 제외함.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880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438	102	5	-	335	880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62	247	13	-	-	258	880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45	735	-	880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66	14	93	207	880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서트 7080」 - 후속 방송 요청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멘터리 추적」 - 방송 제언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가 좋아」 - 방송 제언 ○ 「전국노래자랑」 - 방송 호평 ○ 「1박 2일」 - 출연자 섭외 요청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 극본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경영의 최강시사」 - 출연자 섭외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생생정보」 - ‘추어매운탕’ 연락처 문의 33건 ○ 「6시 내고향」 - ‘천도복숭아’ 연락처 문의 27건 ○ 「아침마당」 - ‘방송 정보’ 문의 24건 ○ 「전국노래자랑」 - ‘방송 정보’ 연락처 문의 13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1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10건 ○ 「수신기술」 문의 2건 외 2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35건 ○ 「수신료」 문의 21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9건 ○ 「전화교환」 문의 16건 ○ 「주차」 문의 1건 외 1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 문의사항 포함 207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방송 요청	<p>○ 「콘서트 70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11. 6.~2018. 11. 3. (토) 1TV 방송. (총 663부작) - 중장년층을 위한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고 향수에 젖을 수 있었다. 무려 14년간량 수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시사·교양]	
방송 제언	<p>○ 「시사멘터리 추적」 「[이슈추적] 어느 공무원의 죽음」(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7. 10.(일) 1TV (20:10-21:00)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송 내내 유족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겨 균형이 맞지 않게 느껴졌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연예·오락]	
방송 제언	<p>○ 「노래가 좋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7. 10.(일) 1TV (09:05-10:00) - 끼 많은 일반인들의 가창력과 기상천외한 인생사를 들을 수 있어 매주 재미있게 시청한다. 그러나 간혹 노래 실력이 출중한 팀이 떨어지는 등, 실력보다 사연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실력보다 사연에 집중이 되는 점을 수정·보완해서 더욱 공정한 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p>방송 호평</p> <p>출연자 섭외 요청</p>	<p>○ 「전국노래자랑」 ‘전남 영광군 편’(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7. 10.(일) 1TV (12:10-13:20) - 이날 「전국노래자랑」이 무려 2년 반 만에 현장에서 진행됐다.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출연자들이 펼치는 노래와 개인기, 그리고 전남 영광군의 자랑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시청하며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몽클했다. 송해 선생님의 빈자리는 아쉬웠지만, 이호섭·임수민 진행자의 맛깔 나는 진행도 신선하고 보기 좋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1박 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7. 10.(일) 2TV (18:30-20:00) - 해당 방송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지난 6월 멤버였던 라비 씨가 군 입대를 앞두고 하차하며, 현재는 5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짝이 맞지 않아 예전보다 박진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새로운 멤버를 보강해 다시 6인 체제로 「1박 2일」다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드라마]	
극본 제언	<p>○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7. 10.(일) 2TV (20:00-21:20) - 진수정(박지영 분)이 자신을 입양아라 의심하는 시누이 때문에 당황했다. 입양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진수정이, 시누이 때문에 숨도 못 쉴 정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갑자기 나타난 여동생이 오빠의 가정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설정이 억지스럽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시청자들이 공감하며 몰입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출연자 섭외 제언	<p>○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시즌2’(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7. 11.(월) 1R (07:20-08:57)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해 ‘첩보 삭제 진실 공방, 입장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방송에 출연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편파적이다. 또한 박지원 전 원장이 「사사건건」을 비롯한 KBS 시사 프로그램에 중복적으로 출연하는 점도 청취자 입장에서는 식상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